

광주 북구갑 韓 “범야권 대통합을” 姜 “무소속이 野 분열”

<화갑>

<기정>

4·9 총선 표밭

○~통합광주 북구갑 무소속 후보는 6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설 범야권 대통합을 제안하고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평일에 접촉이 어려웠던 30~4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거리 유세를 벌이는 등 부동층 표심을 잡는데 총력.

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민주당이 목표표로 하고 있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 달성은 물 건너 갔다”면서 “서민경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고 5년 뒤 평화민주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4·9총선 이후 당선된 무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야당이 범야권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후보는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 민주당의 개혁공천과 민의를 훼손한 당에 야권 대통합 운운하는 것은 적 앞에서 분열상을 드러낸 꼴”이라고 비판.

강 후보는 또 “진정 한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기를 원했다면 유권자에게 혼란만 부채질할 무소속 출마가 진정 맞는 것이었는지 먼저 고민했어야 했다”고 꼬집기도.

이희호 여사 아들 살리기 등분서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무안·신안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여사가 지난 주말 막판 세뎬이를 위한 지원유세

에 나서 눈길.

이 여사는 5일 무안 해제면 장터 유세에서 “김후보가 당선돼 서삼석 군수,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힘을 합치고 김 전 대통령이 뒤에서 지원한다면 기업도시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면서 “무안기업도시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

이윤석 무소속 후보도 해제면 장터에서 유세를 갖고 “60이 가까운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에 의존하는 김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아들, 무안의 아들인 저를 당선시켜 무안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자”고 강조.

신안지역 유세에 나선 통합민주당 황호순 후보는 “민주당의 공천심사를 통과한 저야말로 민주당의 정통 후보”라며 “민주당을 살리고,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화 표심 결집” VS “햇볕정책 계승”

○~목포에서는 지난 5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 정영식 후보가 그동안 흩어졌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표밭다지기에 본격화.

정 후보는 이날 하당 장미거리와 부영2차 상가를 찾아 “후보가 단일화됨으로써 이번 선거의 승리는 확실해졌다”면서 “목포시민과 민주당을 위해 정경당당하고 깨끗한, 그리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

박지원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본심은 저에게 있다”며 “50년 민주평화개혁세력의 적통을 잇고,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황호순 민주당 무안·신안 후보가 무안 5일장을 찾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왼쪽)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5일 무안에서 김홍업의원 지지유세를 펼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강운태 “일 잘하는 사람 뽑아달라”

○~광주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3명이 지난 5일 남구를 방문, 같은 당 소속인 지방문 후보 지원유세에 참석, 지 의원의 지지를 호소.

민주당 후보 3명은 이날 집중지원유세를 통해 “박재승 공심위원장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 공천자로 결정된 지 후보를 적극 밀어줄 것”을 당부.

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운태 후보는 봉선동 이마트 등을 돌며 “이번에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인물론을 집중 부각.

강 후보는 “광주시장, 내무부장관 등을 두루 지내며 쌓아온 경력과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남구의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다짐.

박주선-김태욱, 주말 유세 총력전

○~박주선 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는 선거 마지막 주말과 휴일을 맞아 무등산과 지산유원지 벚꽃축제장을 찾은 가족단위 등산객과 연인들을 상대로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

박 후보는 5일 벚꽃축제 개막식이 열린 지산유원지에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압도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젊은 연인들에게도 새끼손가락을 걸며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후보도 예술의 거리와 중심사, 계림동, 운림동 등을 돌며 총력유세전을 펼쳐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

김 후보는 유권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책임한 재개발로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동구의 모습은 텅 빈 회색도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뉴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광주 후보들 남구 지원유세 총출동

광주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8명 가운데 3명이 지난 5일 남구를 방문, 주월동 대성여고 사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지방문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영택(서구갑), 김재균(북구갑), 강기정(북구갑), 지방문 후보. /나명주기자 mjna@

총선 후보들 선거 유세도 좋지만...

찌렁찌렁 확산기 로고송 ‘왕짜증’

독서실·학원가 등 ‘소음 고통 막아달라’ 민원 빗발

4·9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거 소음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똑같은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데도 합리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선거철만 지내고 보자’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선관위 등 관계당국에 대한 비난도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광주·전남지역 후보 93명 대부분이 유세와 홍보를 담당하는 승합차량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행하면서 지나친 소음

에 항의하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전화도 끊이지 않고 있다

향의 전화 대부분은 공무원 학원·고시원·독서실 등이 밀집한 지역과 주택가 인근 상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내용도 ‘수험생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겠다’, ‘새벽까지 일하다 들은 사람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4월12일이 국가직 공무원 시험날인데 독서실 창문을 닫고 귀마개를 해도 집중이 안된다’, ‘업무시간 내내 소음으로 시달려야 한다’,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는 등

다양했다.

특히 각 정당이 유세 차량 앰프·스피커·마이크는 최고급을 사용하라고 훈수한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로고송과 후보 이름을 반복적으로 크게 틀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상 유세 소음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소음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선거법은 유세 가능한 시간(오전 6시~밤 11시)만을 정해놓을 뿐 유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 크기는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민주당 후보들 “광양만권 도시 통합 찬성”

7일 공동회견 입장 밝혀

통합민주당 광양만권 후보들이 오는 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와 순천, 광양시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8대 총선에 출마한 여수갑 김성근, 여수를 주승용, 순천 서갑원, 광양 유윤근 후보는 7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와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통합이 필요하므로, 18대 총선에 당선되면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



<김성근 후보> <주승용 후보> <서갑원 후보> <유윤근 후보> 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서갑원 후보 측 관계자가 6일 전했다. 광양만권 도시 통합작업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도시 통합에 대해 오현섭 여수시장과 노관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Honda Civic
 Fashion Syndrome, Civic
 Civic Spring Campaign

Honda Cars 3-000 **시승용 BrandOpen** 문의전화 : 063-527-9999 광주광역시 북구 선천동 2가 Civic Spring Campaign Civic 시승용 차량은 고객님에게만 제공되며, 시승용 차량은 고객님에게만 제공됩니다.